

텔레비전에서 고급 향수의 향기가 솔솔~

최근 특허청은 세계 최고급 향수의 향기를 텔레비전을 통해 맡아볼 수 있도록 하는 기술 특허출원이 이어지고 있어 시청각 위주의 텔레비전에 후각적인 기능이 덧붙여질 전망이다

디지털 정보기술의 눈부신 발전과 통신 및 방송 사업자 간의 빠른 행보가 디지털 홈시장 활성화에 열쇠 역할을 하면서 다양한 기능을 탑재한 멀티미디어 기기가 봇물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특히 일상생활에서 가장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안방용 디지털 텔레비전 제품에 인간의 오감 중 기존의 현장감을 중심으로 하는 시청각에 이어 인간처럼 후각적 기능을 제공하는 첨단 응용기술의 개발품이 속속 나오고 있는데 현재까지 이와 관련되어 '향발산형 디스플레이 시스템' 및 '멀티미디어의 향 발생 시스템' 등의

등의 기술이 출원되었다.

텔레비전 수상기 내에 적용되고 있는 후각 관련기술의 특징을 살펴보면 우선, 각종의 향기와 냄새 정보를 검출하고 발생시키는 후각정보 검출기 및 후각발생기를 구비해 검출된 후각정보에 따라서 후각발생기 내의 해당 물질의 향기를 시청각 정보와 동일화시켜 방출하도록 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후각 관련기술은 현재 텔레비전 수상기 내에 다수의 값비싼 물질인 향키트가 내장되어야 하는 다소 기계적인 요소(mechanical factor)를 포함하나, 향후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오디오·비디오 신호인 시청각 정보에 자동적으로 인식되어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보다 현장감 있고 진보된 감성의 기능을 가진 디지털화된 집적기술의 전기신호로 대체될 것으로 보여진다.

BM특허권 보호위한 대책 마련 시급하다

개인 창업과 인터넷 바람을 타고 인터넷 관련 비즈니스모델(BM)의 특허등록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이에 따라 특허권 침해 논란이 업계의 새로운 이슈로 떠오르면서 특허권 보호를 위한 제도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달 15일 한국특허정보원에 따르면 BM특허 등록건수는 지난 98년 94건에 불과했으나 2000년 174건, 2001년 338건, 2002년 776건으로 2000년 이후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올 1월에서 4월 중 BM특허 등록건수는 26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97건)에 비해 무려 2.7배나 늘었으며 이 가운데 인터넷 관련 특허는 175건으로 전체 BM특허 중 65%를 차지했다.

또 인터넷 관련 특허 중 개인이 등록한 특허는 110건으로 전체 인터넷 관련 특허의 63%를 차지했다. 이는 외환위기 이후 소호(SOHO) 운영자 등 개인 창업이 늘어나면서 이들이 특허권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분야별로는 전자상거래가 45건(25%)으로 가장 많았으며 인

터넷 광고가 20건(11%)이었다. 이밖에 이메일 관련 특허, 캐릭터 유료판매 등과 관련된 특허도 상당수 등록됐다.

포털업계는 등록특허가 늘어남에 따라 향후 특허권 침해로 인한 법적 공방이 늘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다음커뮤니케이션·NHN 등에 대한 2~3건의 특허권 침해 관련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 포털업계는 특허권리의 범위가 광범위하다며 특허무효 심판 청구로 맞대응하고 있다.

이메일 솔루션업체인 넥센은 지난해 7월, 다음을 비롯한 포털업계를 대상으로 특허권침해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에 대해 포털업체들은 특허무효 심사청구를 특허청에 요청했다. 또 지난해 한솔CSN이 제기한 특허침해에 대해 8개 인터넷 쇼핑몰업체는 특허무효 소송을 진행 중이다. 전문가들은 국가의 기술 축적을 위해 특허권 보호가 시급하며 국내 업체간 분쟁보다는 국내특허의 국제화가 선행과제라고 강조했다.

칼로리 분할표기 미국 특허 취득

한림메카트로닉스(대표 이영원)가 칼로리 분할표기된 식품포장과 포장방법의 발명특허를 미국 특허청으로부터 취득했다고 지난달 17일 밝혔다. 이 회사는 또 유럽, 중국, 러시아, 브라질, 호주, 터키, 멕시코, 캐나다 등에 특허를 출원중이며, 이에 앞서 지난 2000년 11월 국내 발명 특허를 취득한 바 있다.

이영원 사장은 '이번 발명으로 정상인은 물론 다이어트를 필요로 하는 비만인, 당뇨병인, 고혈압인 등이 일정한 칼로리만을 섭취하게 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상인이나 건강한 사람 또는 해외 출장이 필요한 사람에게 있어서도 정확한 칼로리 양의 음식을 먹을 수 있는 효과가 있어 건강관리가 용이하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칼로리 분할표기 포장 특허는 칼로리 양의 표시가 된 음식물 또는 포장용기가 생산되는 효과를 가져와 새로운 식품문화와 포장산업이 창출되고 포장용기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벤처농업인, 마늘가공방법 특허 출원

당도를 향상시키고 생으로 먹기 어려운 마늘 먹기 좋게 가공한다는 점에서 주목받다

한 벤처농업인이 마늘 냄새를 제거한 마늘가공방법 특허를 출원,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달 3일 대전시농업기술센터는 영농후계자인 정광환(42. 대전시 서구 단방동)씨가 당도가 높고 마늘 특유의 냄새와 매운 맛을 제거한 뒤 연질 또는 분말 상태로 되는 마늘 가공방법에 대해 특허 출원했다고 밝혔다.

이 방법은 생마늘을 반 건조시켜 당화 처리하고 수분 13% 이내로 건조한 뒤 찌는 과정을 거쳐 압착하거나 분말상태로



만드는 것으로, 당도를 향상시키고 생으로 먹기 어려운 마늘을 먹기 좋게 가공한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생마늘 외에는 별도의 첨가물을 넣지 않은데다 마늘의 매운 맛과 역겨운 냄새를 제거하면서도 몸에 좋은 유효물질을 파괴하지 않고 마늘이 탈 때 나오는 유해 물질도 함유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삼을 만드는 방식과 비슷한 '재래식 찌는 방법'을 적용한 이 제품은 대덕연구단지 전문가들로부터도 마늘의 효능을 최대한 살린 가공방법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정씨는 이번 특허 출원까지 3년여간 연구를 계속해 왔으며 최근에는 이 방법을 적용해 생산한 제품을 전자상거래(madongi.com)에 내놨다.

정씨는 '마늘을 최상의 상태에서 먹기 위한 여러 시도 가운데 우리 고유의 방법인 찌는 것이 최적의 방안이라는 결론을 내려 특허를 출원했다'고 말했다.

KRNIC, 넷피아 키워드 검색 특허에 제동

넷피아(www.netpia.com)가 지난 1월 등록한 한글 키워드 검색 특허에 대해 한글인터넷정보센터(KRNIC)가 제동을 걸었다. KRNIC은 '넷피아의 키워드 검색 관련 특허인 인터넷기반 검색 방법(특허 제0368300호)에 대해 최근 이의 신청을 제기했다'고 지난달 11일 밝혔다.

이 특허는 인터넷 주소창 혹은 응용프로그램 검색창에 키워드를 입력하면, 바로 해당 사이트의 홈페이지로 연결되는 서비스로 입력된 키워드가 그냥 일반명사로 등록된 경우에는 관련 검색 리스트와 전문적인 정보가 같이 제공된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한국여성발명협회'라는 등록된 고유명사를 입력하게 되면 한국여성발명협회 홈페이지와 바로 연결되지만, '여행' 같은 일반명사를 입력할 경우에는 여행전문 사이트들의 리스트가 검색 결과에 보여지도록 하는 방식이다.

넷피아의 이번 특허는 네이버나 드림위즈와 같은 포털 서비스의 '사이트 바로가

기' 서비스와 유사해 특허 분쟁 소지가 제기됐었다. 이 특허에 대해 KRNIC은 '현재 인터넷에서 일반적으로 이뤄지는 서비스에 대해 특허 문제의 소지가 있어 지난 4월 24일 특허청에 이의 신청을 제기'했으며 또한 지난달 24일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사유를 적은 보정서까지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KRNIC 나정정 부장은 '넷피아가 특허를 등록한 직후 KRNIC의 모바일주소서비스(WINC)가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해 이의 신청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넷피아는 WINC 중 '구분자(#)+고유번호' 없이 바로 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는 WINC의 '익스프레스 번호' 서비스와 모바일 브랜드 서비스가 자사의 특허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넷피아는 KRNIC이 이의 신청을 제기하자 이에 맞서 특허침해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혀 앞으로 특허 분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 지면안내 ■

- 2 벤처농업인, 마늘가공방법 특허 출원
- 3 한산중학교 발명활동 촉진 강연회 열다
- 5 생활 속의 경제 운전 이렇게 실행하자!
- 7 역사속의 발명품 덴함의 자동판매기
- 9 인물 FOCUS 다산식품연구소 조은경 대표이사
- 11 허브 향기에 취해보자 포천 '허브 아일랜드'
- 13 아·태지역 지적재산권 보호 대폭 강화

[기사의의]
(사)한국여성발명협회
 (02)538-2710